

언제든 영원한 길 떠날 채비 해야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위령 미사, 코로나 19로 떠난 신자 기억하며 기도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정대웅 신부와 70여 명의 신자가 '무궁화동산(가칭)'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예술로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 두우모(DUOMO) 대성당 입구 오른쪽 문장미 화환 조각 속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일 뿐이다' 왼쪽 문 가시 십자가 조각 속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도 순간적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주임 정대웅 요한보스코 신부)는 지난 7일 필라델피아 소재 포레스트힐(Forest Hills) 공원 묘지에서 정대웅 신부 집전으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미사를 봉헌했

다. 가칭 '무궁화동산'이라고 불리는 이 묘지는 수많은 언더과 언덕이 서로 마주하고 이어지는 한 곳에 2002년 대지를 구입, 660여 기 자리에 현재 90여 명이 넘는 신자가 잡들어 있다. 2014년에는 묘지 안에 제대를 설치하고 축성식을 가졌다.

올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휩쓸며 12일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고, 이중 25만은 미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본당은 한해 평균 3배가 넘는 17명의 신자가 대부분 병원과 양로원에서 코로나 19와

노환으로 하느님 곁으로 떠났다.

정 신부는 강론에서 왕과 광대 이야기로 화두를 꺼냈다. "왕은 세상 여행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며 살아왔지만 마지막 천국 여행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명청한 일이라고 질책을 받는 왕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길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강조했다.

이어 "바쁘다는 핑계와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추고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코로나 19로 사망한 많은 분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현재 살아 있는 우리도 이분들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있을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자."고 주문했다.

미사 후 신자들은 먼저 떠난 부모 친척 교우들의 묘지를 찾아 기도하고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추억에 잠겼다.

양경숙 명예기자